스마트폰 통신비용에 따른 활용 실태 분석
- K 여자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cost of smart phone
- focusing on K Women's University student

황 의 철
광주여자대학교

Hwang eui-chul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5362만명으로 전체인구(5096만명)를 넘었다. 1인당 1대 이상을 갖고 있는 셈이다. 휴대폰 1대 당 3만원의 통신요금을 생각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자본금 약 1조 5천억원을 상회하는 요금이 매월 통신요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K대학교 236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신요금에 지불되는 요금에 비하여 활용도는 78%로서 22%는 필요이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 통신 요금은 사용 용도와 본인의 통화 패턴에 맞게 선택하고 남는 통화·문자량을 차기월로 이월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또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I. 서론

이동통신사에 격변이 휘몰아치고 있다. 보조금을 앞세워 고객을 서로 유치하려는 각축전에서 차별화된 요금제로 승부가 갈리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월 6만9천원 이상 요금제면 SKT·KT 가입자와 무제한 통화가 가능해진다. 음성은 가급적 무제한 이는 곧 음성위주의 현재 요금체계를 데이터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음성을 무료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트랜드라 한다[1].

최신 통신환경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이 결합되는 유·무선 인터넷 통합(All-IP)으로 가고 있어, 음성 트래픽보다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음성통화를 많이 쓰는 영업사원·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생계형 통화 이용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이동통신시장이 사용용도에 걸 맞는 요금제를 내놓는 등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불붙고 있다(매일경제, 2013. 4.2).

Ⅱ. 본론

1. 통신 요금 맞춤형 요금제 선택

휴대폰 사용자 대부분이 요금제에 의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통화나 데이터를 쓰지 못하고 통신 요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통화량이나 문자가 이월되거나 적립되지 않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3G와 LTE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통화와 문자, 데이터들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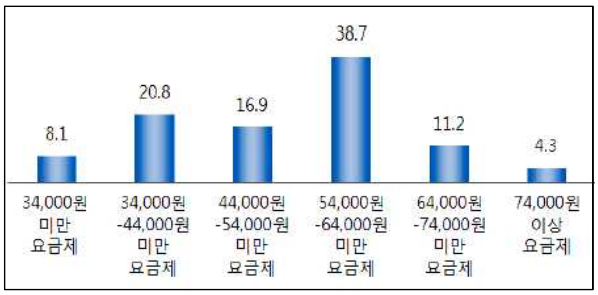
LTE 62요금제(월 6만2000원)는 한 달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이 350분인데 238분(68.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문자서비스와 데이터 통신 사용량도 각각 28.5%, 56.7%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약정기간은 24개월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87.4%인 1321명이 이동통신서비스 의무 약정기간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24개월 약정이 49.8%로 가장 많았다. 36개월 17.4%, 30개월 7.7%가 뒤를 이었다[2].

2. 통신요금 지출 현황 대비 활용비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12.11.17.~11.28 기간에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인터넷 조사 한 결과 이용자의 92.2%가 정액요금제 이용자이며, 그 중 38.7%가 54,000- 64,0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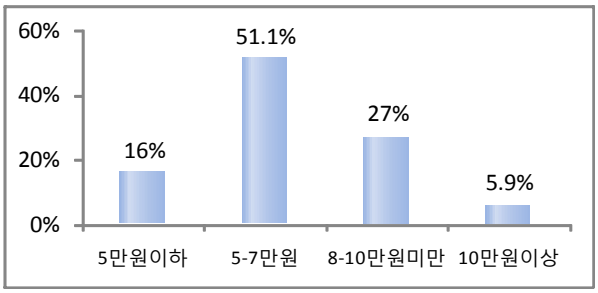
2013. 4.4~4.12까지 K대학교의 여자대학생 236명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통신요금이 5만원 이하가 16%, 5-7만원이 51.1%, 8-10만원이 27%, 11-13만원이 4.2%, 14-15만원이 1.3%, 16만원 이상이 0.4%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월 평균 통신비용에 비해 실제 스마트폰 활용 비율은 50%이하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13.6%, 51-60%가 21.2%, 61-70%가 16.1%, 71-80%가 22.5%, 81-90%가 19.9%, 90%이상 활용하는 이용자는 6.8%이었다.



▶▶ 그림 1. 12-59세의 스마트폰 요금 현황(%)

*출처 : 인터넷진흥원, 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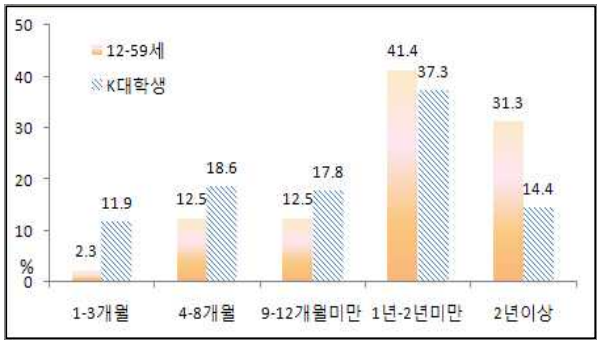


▶▶ 그림 2. 여자대학생의 스마트폰 요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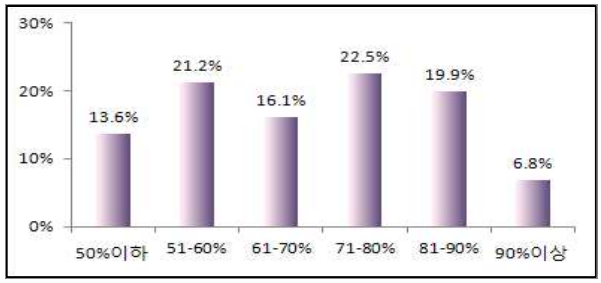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의 자본금은 약 1조 4,890억원(http://pr.hyundai.com)이다. 전 국민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의 월 통신비용이 1인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휴대폰 가입자 약 5000만대라고 가정) 월 1조 5천억원이 통신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신요금 중 실제 휴대폰의 활용도는 약 78%로 1조 5천억원 중 1조 1700억원 정도 활용하는 셈이다. 월 낭비는 3300억원, 1년이면 3조 960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월 용돈에서 휴대폰 통신요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가 49.8%, 11-20%가 22.5%, 21-30%가 12.6%, 31-40%가 9%, 41%가 6%이었다. 월 용돈은 10만원 이하가 13%, 11만원-20만원이 23%, 21만원-30만원이 36%, 31만원-40만원이17%, 41만원-50만원이 7.2%, 51만원 이상은 3.8%이다.

설문에 답한 72%가 월 30만원 이하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고, 월 통신요금은 7만원 이하가 67.1%이었다. 대략 1인당 7만원의 22%인 15,400이 매달 낭비되고 있다.



▶▶ 그림 3. 스마트폰 사용기간 비교



▶▶ 그림 4. 통신요금 지불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 비율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사항 중 비싼 통신 요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7.3%, 비싼 단말기 가격이 29.7%, 배터리 사용시간 13.7%, 느린 네트워크의 속도 4%라고 응답하였다. SKT 'T끼리 요금제', KT의 '모두다올레' 요금제 출시, LG 유플러스의 데이터의 사용속도를 보장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4].

Ⅲ. 결론

통신 요금제는 사용 용도와 본인의 통화 패턴에 맞게 선택하고 가족 결합과 할인 옵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화 · 문자 ·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요금제에서 기본료, 음성통화사간, 메시지, 데이터 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실버층이라고 하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저렴한 청소년 · 실버층 전용요금 제도를 활용해 볼만하다. 또 '이동통신 재판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5]. 또한 결합상품과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옵션을 이용하면 통신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통신요금을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이다.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맞춤형 요금 추천, 통신서비스 간편 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남는 통화 · 문자량(32% · 72%)을 차기월로 이월하고 이월된 양이 축적되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또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1.
[2] '이동전화 요금체계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pp.23-24. 2012.12.
[3] '어디에 걸든 무제한 무료통화', 중앙일보, 2013.4.12.
[4] '밤새 통화해도…우리끼린 공짜', 매일경제, 2013.4.2.
[5] '내게 맞는 요금제 고르고 가족결합 · 할인옵션 활용', 매일경제, 2013.1.8.